

국내절차

Step1. 사업 계획과 사업성 분석 (투자정보 조사 > 사업계획 수립 > 사업 타당성 분석)

·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체크 및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·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. 사업성 분석은 투자로부터 3 년또는 5 년까지의 재무제표 작성, 수익성 분석들 해보는 작업이며, 투자의 목적이 충족되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.

Step2. 투자 대상국으로부터 투자허가 취득

· 중국, 베트남 등은 투자전에 국가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 투자가 가능하나, 미국 등 선진국은 투자 제한 업종 외에는 사전 허가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.

· 국가별, 업종별로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· 현지인과의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합작투자 계약 체결 후 국내에서 해외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.

Step3. 해외법인 설립전 사전신고

Step4. 해외 직접투자 또는 지사설치 신고서 제출

Step5. 투자자금 송금 및 신고 수리 기관의 사후 관리

· 해외 직접투자자는 아래와 같이 사후 관리 보고를 해야 합니다.

보고서종류	제출기한
외화 증권(채권) 취득 보고서	6 개월 이내
송금(투자) 보고서	송금 또는 투자 즉시
연간 사업실적 보고서	결산 후 5 개월 이내
해외 직접투자 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 보고서	
기타 신고	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Step6. 주재원 파견

· 주재인력은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핵심업무(제조,관리 등)만 주재인력으로 파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.

· 해당 국가의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며, 기간은 보통 3 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.

해외절차

Step1. 투자 허가 취득

- 투자업종이 투자 우대 업종인지 투자 제한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투자 우대 업종의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있으니,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지분을 제한 여부, 회사의 형태가 투자목적 및 사업계획에 맞는 적합한 형태를 선정 할 수 있도록 **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한 후,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업체에 설립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.**

Step2. 법인설립

- 신규 또는 M&A 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.
- 국가별로 회사의 형태 및 책임 범위가 상이합니다.
- 투자국의 무역, 외환 거래, 과실 송금에 대한 규제 유무, 강도 등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.
- **투자국의 규제정도에 따라 제 3 국(홍콩)을 통해 우회 투자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**

Step3. 공장설립 및 제조설비 발주

-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"사전검토 > 입지/부지 선정 > 공장설립 승인 > 건축 > 등록"의 단계를 거칩니다.
- 입지선정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, 일반적으로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역 등의 계획입지가 있습니다. 계획입지가 장점이 많으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합니다.
- 공장설립은 인허가 사항이 많으므로 **경험이 많은 현지 한국인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중국 등은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할 경우 인허가 행정업무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.**

Step4. 핵심인력 채용및 교육

Step5. 공장 운영기준 수립

Step6. 일반 인력 채용 및 교육

Step7. 공장 설립 완료

Step8. 공장 운영 시스템 최종 점검

Step9. 공장 가동

Step10. 청산

- 국가별 투자형태에 따라 청산 절차가 상이함을 숙지해야 합니다.
- 회사청산의 절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